

[사회]

“일부 복제의약품 약효 의문”

의사협회 “효과 없고 부작용 우려”

시중 유통되고 있는 일부 복제의약품(카피약)의 약효가 기준치를 벗어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약을 먹어도 제대로 효과를 보지 못하거나 부작용을 떠안게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5개 제약사의 5개 카피약에 대해 생물학적 동등성(생동성) 검증을 실시한 결과, 3개의 약품의 약효가 기준치를 벗어난 것으로 조사됐다고 지난달 31일 밝혔다.

현재 건강보험에 등재돼 있는 약은 총 2만1천700여 품목으로 4천~5천 품목 정도가 자주 처방되고 있으며, 이 중에서 생동성 시험을 거친 의약품은 3천500여 개에 이른다. 통상 카피약이 오리지널약에 비해 약효가 80~125% 정도면 기준에 부합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

검증 결과, A 제약사의 항진균제는 약효가 5~35%에 머무는 것으로, B

사의 고지혈증 치료제인 항지혈증제는 63~86%에 그치는 것으로 각각 조사됐다. 항진균제의 경우 오리지널 약 효능의 20분의 1 수준에 불과할 수 있다는 것으로 의약품으로서의 해당 기능이 거의 상실된 것이나 다름없다는 게 의협의 지적이다.

C 제약사의 고혈압약은 약효가 102~131%로 오히려 기준치를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되면 약의 과다 효능으로 부작용이 야기될 우려가 있다는 게 의협의 판단이다.

나머지 D 제약사의 당뇨약은 86~103%, E 제약사의 소염제는 86~114%로 기준치안에 있었다. 약효 동등성이 입증됐다는 말이다.

이번 검증작업은 공모로 모집한 4개 의료기관에 의뢰, 3억원의 비용을 들여 6개월간 이뤄졌다. 식약청은 지난해 647개 의약품의 생동성 시험자료를 조사한 결과, 총 115개 품목이 조작됐다는 사실을 확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Bio-equivalence Test, 이하 생동성 시험)=복제의약품(카피약)이 사람 몸속에서 오리지널약과 똑같은 약효를 내는지를 평가하는 약효 동등성 시험의 일종. 2006년 3월31일 현재 국내에서 생동성 시험을 거친 의약품은 모두 1천162개 품목. 또 생동성 시험을 실시한 의약품 제조사에 생산을 위탁해 생동성 인증을 받은 의약품은 2천377개 품목이다.

인하고 허가 취소, 판매금지, 보험급여 중지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내렸었다. 의협은 “조사대상 의약품 5개 중에서 1개는 효능이 거의 없었고, 다른 1개는 70%의 효능만 보이는 것으로, 또 다른 1개는 오리지널 약 효능성이 오히려 과다해 큰 문제를 유발할 수 있는 것으로 판명됐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장애인 교사들 대거 교단 선다

임용시험 202명 합격...광주·전남은 20명

장애인 교사들이 새 학기부터 대거 교단에 선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지난달 31일 2007학년도 초·중·고등교원 임용시험 합격자를 집계한 결과 초등(유치원·특수학교·영양교사 포함) 임용시험에서 70명, 중등 임용시험에서 132명 등 총 202명의 장애인이 합격했다고 밝혔다.

광주시교육청의 경우 초등 5명, 중등 6명 등 11명, 전남도교육청은 초등

6명, 중등 3명 등 9명이다.

이처럼 장애인 교사 임용이 크게 늘어난 것은 2007학년도부터 시행된 초·중등교원 임용시험 장애인 구분모집에 따른 것으로, 교육부는 이번 임용시험에서 처음으로 신규 채용 인원의 5%를 장애인으로 구분모집했다.

한편 장애인 교원 수는 2005년 말 현재 총 1천327명으로 전체 교원(31만4천명)의 0.4% 정도에 불과하다. /향태경기자 hwangtae@kwangju.co.kr

전교조, 연가 징계 반발 불복종 투쟁 전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최근 전국 16개 시도교육청별로 진행중인 연가 투쟁 참가 교사들에 대한 징계 조치에 반발해 국제노동기구(ILO) 제소 등을 포함한 전방위 불복종 투쟁을 전개키로 해 교육당국과 갈등이 증폭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진화 전교조 위원장은 지난달 31일 오전 서울 영등포동 전교조 사무실에서 가진 제13대 집행부 출범 기자회견에서 최근 교육인적자원부의 연가투쟁 대량징계는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소정심사와 행정소송 등의 법적 대응도 전개할 것이고 국제노동기구(ILO)와 국제교육연대(EI)에 제소하고 2천113명의 행정처분에 대해서도 고충처리심사를 진행할 것이다”라고 공언했다. /연합뉴스

눈은 소리없이 쌓이고
찬 대륙고기압의 영향으로 구름이 많고 가끔 눈이 오겠다.

2월 1일
(음 12월 14일)
◇전국날씨

| | | |
|----|--------|-------|
| 광주 | 구름맑고 눈 | -2~2℃ |
| 목포 | 구름맑고 눈 | -1~2℃ |
| 여수 | 구름맑고 눈 | -2~3℃ |
| 순천 | 구름맑고 눈 | -1~3℃ |
| 해남 | 구름맑고 눈 | -4~2℃ |
| 영광 | 구름맑고 눈 | -3~3℃ |
| 영암 | 구름맑고 눈 | -3~3℃ |
| 강진 | 구름맑고 눈 | -3~4℃ |
| 고흥 | 구름맑고 눈 | -3~2℃ |
| 보성 | 구름맑고 눈 | -2~2℃ |
| 담양 | 구름맑고 눈 | -3~2℃ |
| 무안 | 구름맑고 눈 | -3~2℃ |
| 곡성 | 구름맑고 눈 | -5~1℃ |
| 구례 | 구름맑고 눈 | -3~1℃ |

서해남부
알바다=서~북서풍 파고 2.0~4.0m
면바다=서~북서풍 파고 2.0~4.0m
남해남부
알바다=서~북서풍 파고 2.0~3.0m
면바다=서~북서풍 파고 2.0~4.0m

목포 밀물 < 01:11 썰물 < 06:44
14:11 밀물 < 19:31
여수 밀물 < 09:08 썰물 < 02:28
21:06 밀물 < 15:12

▲해돋이 07:32 ▲해질 18:00 ▲달돋이 16:56 ▲달질 07:01
기상내선전화: 국번없이 131 (광주지방기상청)
◇주간날씨

| 날짜 | 2(금) | 3(토) | 4(일) | 5(월) | 6(화) | 7(수) |
|-------|------|------|-------|------|------|------|
| 날씨 | ☁ | ☀ | ☀ | ☀ | ☀ | ☀ |
| 최저/최고 | -4/3 | -3/8 | -2/10 | 0/10 | 2/9 | 3/8 |

올들어 가장 많은 눈 온다

광주·전남 5~20cm...대설 예비특보 발령

광주·전남에 올 들어 가장 큰 눈이 내릴 전망이다. 광주지방기상청은 1일 새벽을 기해 광주·전남(나주·담양·곡성·구례·장성·화순·영안·무안·함평·영광·목포·신안·진도)에 대설예비특보(24시간 신적설이 5cm 이상)를 발령했다. 예상 적설량은 5~20cm이며, 서해안 지방은 다소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이 있어 주의해야 한다.

기상청은 또 1일 새벽 서해남부 모든 바다, 1일 오전 남해서부 먼바다에 풍랑예비특보(평균풍속 초속 14m 이상 3시간 이상)를 내렸다. 무안·함평·영광·목포·신안·대흑산도·홍도

에는 강풍예비특보(평균풍속 초속 14m 이상 또는 순간풍속 20m 이상)가 발효됐다. 1일 아침 기온은 광주 영하 2도, 구례 영하 4도, 무안·순천·고흥 영하 3도, 여수 영하 2도 등 대부분 지역이 영하권에 머물 것으로 예상된다. 찬 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체감 기온은 더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낮에도 대부분 지역이 2~4도에 머물렀다.

기상청은 “눈은 1일 밤 늦게 서서히 그치며, 추위는 2일까지 계속되다가 고기압 세력이 약해지면서 3일 광주 낮 기온이 최고 8도까지 올라가는 등 서서히 풀린다”고 밝혔다. /이승배기자 lsb54@kwangju.co.kr



‘어린이 박물관’ 체험 학습 국립광주박물관이 겨울방학을 맞은 청소년들의 역사 체험 학습을 위해 ‘어린이 박물관’을 개설·운영 중이다. 지난달 31일 박물관을 찾은 어린이들이 ‘발굴탐험대’에서 발굴조사 체험학습을 하며 우리 고대유물을 익히고 있다. /위정리기자 jrwi@kwangju.co.kr

광주 하루 출생 36명·사망 16명

市 통계연보...21쌍 결혼하고 9쌍 갈라서

지난해 광주에는 하루 평균 36명의 아기 울음소리가 났고, 21쌍의 부부가 탄생했다. 광주시가 최근 발간한 2006년 통계연보 ‘광주의 하루’에 따르면 1일 평균 36명의 새 생명이 세상에 태어났고 16명이 숨진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21쌍이 부부로 새로운 출발을 했지만 9쌍이 갈라선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시민의 하루 평균 금융권 예금액은 303억원이었고, 집배원의 우편물 배달 건수는 38만1천통이었다. 자동차 등록대수는 37대였으며 교통인구는 1일 74만8천명으로, 전체 인구의 절반 가까이 업무와 출근 등으로 집을 나선 것으로 집계됐다. 교통사고 위반으로 1천468건이 적발됐으며, 화재는 2건, 범죄는 171건이 발생했다. 하루에 쓴 물 사용량은 34만4천㎡, 전력은 1만7천MWh, 석유 1만4천467배럴이었으며, 생활 폐기물 발생량은 1천503t에 달했다. 지방세는 21억1천900만원을 징수했으며 민원서류는 1일 2만3천30건, 건축허가는 하루에 10채를 처리했다. /채희중기자 chae@kwangju.co.kr

최저임금 위반 116개업체 적발

광주노동청, 7천여만원 추가 지급 지시

법정 최저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고 아르바이트생 등을 고용하는 사업장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지방노동청은 지난해 한해 광주지역 제조업체와 PC방 등 사업장 807곳을 점검한 결과, 이중 14.4%인 116곳이 최저 임금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지난달 31일 밝혔

다. 노동청은 또 적발된 사업장에 대해 근로자 268명의 임금 7천36만2천원을 추가 지급하라고 지시했다. 노동청은 올해부터 최저임금이 시급 3천480원으로 상향조정됨에 따라 최저임금 규정을 지키지 않는 사업장이 지난해보다 더 늘어날 것으로 보

고, 이달부터 근로감독관을 직접 현장에 파견하는 등 지도점검을 강화할 방침이다. 노동청 관계자는 “모든 사업장에서 단 1시간이라도 일한 근로자 중 최저임금 미만으로 급여를 받고 있다면 반드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최저임금 위반 사업장에 대한 문이나 신고는 광주지방노동청 민원실(062-222-0009)이나 노사지원과(062-220-7200), 근로감독과(062-220-7250)로 하면 된다. /임정희기자 jhlim@kwangju.co.kr

누구나 합격강의

9월 공무원 시험 대비 특강

| | | | |
|-------|-----|-----|-------------------------|
| 국가직 | 행정직 | 세무직 | 교정직 |
| 광주·전남 | 농업직 | 소방직 | 공채: 4월 14일 특채: 3월~5월 |
| 서울지방직 | 경찰직 | 기술직 | |

전남고시학원 전남여고맞은편 ☎222-5105

증개사 전문강의의 17년!!

증개사 특강

20명 정원 소수정예반 1:1 교육방식, 자습실 이용

서울에서 초빙 일류교수진

- 공법·전철
- 공시법·윤철환
- 민법·윤철환
- 세법·유영
- 부동산학·김범
- 법령·실무·김봉익

전남고시학원 전남여고맞은편 ☎222-5105

공인증개사

EBS교육방송

저 자 직 강 출제위원급 최고 교수진

제10회 주택관리사 시험대비

주택관리사

제8회 주택관리사 시험 광주지역 합격자 196명 중 본원출신 143명 합격!

합격률 1위

전국수석 배출
전국최다합격자 배출

제10회 공공증개사 시험
본원출신
승은영님
96.7%

2월 1일
첫진도 개강

광주고시학원 본원 ☎ 227-8003 (구도청 앞 전일빌딩 뒤)
첨단점 ☎ 971-0002 (비치점 옆 광주은행 4F)

천만인을 위한 가발! 젊은가발! - 센스모

센스모는 최고의 전문가가 만든
맞춤가발 입니다!

여러 회사 제품을 착용해 보았습니다. 유명회사 제품이라고 꼭 좋은것은 아니더라구요 가발! 특히 맞춤가발은 본인에게 꼭 맞게 제작하는 것과 스타일에 맞게 손질해주는게 가장 중요하더라구요. 맞춤가발! 어디에서 했다가 아니라 잘하는 사람에게 손질을 받게 중요합니다.

- 차 동훈(38.회사원)-

1. 대학생 및 취업준비생 20%할인
2. 쌍춘년 예비신랑, 신부 및 가족을 위한 마지막 특별할인 찬스!!
3. 농. 어민 근로자 20%할인

Before After

Start Different Life
Sens-Mo
062)676-3545
062)432-3545
위치: 동아병원과 원광대병원 사이

가발경력: 10년
前 하이모 지점장